

승대극회 제43회 가을 정기공연

# 韓氏年代記



작: 황석영  
기획: 천승범  
연출: 이영민

■ 일시

90년 8월 30일 (수 8)  
8월 31일 (수 2, 6)  
9월 1일 (수 1, 5)

■ 장소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 주최

숭실대학교 승대극회

■ 후원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 韓氏年代記

### 격려사



지도교수 한승옥

가을의 소리죽인 침입과 함께

여름의 땀을 거머쥐려는 옹골찬 연극인들이 있습니다.

슬픔 같은 열정으로

당신들을 불사르고, 허위의 껌질을 불사르며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불사르려하는

작으며 더불어 거대한 연극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수예술만을 집요하게 고집해온 숭대극회가 황석영 작의 『한씨연대기』를 제43회

가을 정기공연작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젊은 세대들부터 잊혀져가는 분단의 현상과 아픔, 그리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젊은이의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열연할 구회원, 그리고 같이 수고해줄 전 극회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아울러 이번 공연이 많은 이들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쳐지기를 기원합니다.

## 韓氏年代記

### 모시는 글



극회장 이범준

절규는 시작되고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또 한번 다시 또 한번 완숙을 향한 몸부림들, 고통은  
심했지만 견디어 내야만 했고 견딜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제각기들 자신의 완성을 위해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  
이리라.

쳐들어진 고개는 올려다 본다. 거침없는 시선으로 온 천  
하를 휘어잡을 듯 하다. 여기에 우리의 분투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를 보는 모든 이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각종 행사·기념품·팡프렛·클럽기념품

천우기획 871-0366  
871-0147

(안체행사) T 주문제작

## 韓氏年代記

### 기획의 변



기획 천 승 범

여보게!

무대위에선 낯익은 배우들이  
인간의 거짓 사랑을 진실처럼 꾸미기 시작하는군.

허허!

기교에 익숙한 습관으로

또 다른 껌질을 만들어 꼭꼭 숨었네. 成人이라 이름지어진  
순간부터.

이리 힘겨운 무게로 내 주위를 서성댔던

내 나이 만큼의 우울을 피곤과 함께 떨쳐버리려하지만  
난 바보였네.

생활이 달려들어 내 목을 조르고

난 비겁한 몸짓으로 담배연기속에 그것들을 가두네.

멀리었던 날들이 내 발치로 모여들어

꿈틀대다 사라지곤 했지만

그것뿐일세. 난 거동하지 않았네.

멍청한 절름발이 녀석!

하늘을 날아오를성 싶어 의식을 힘껏 패댕이 쳐 봐도

내 목을 운명에다 못질해대고

질편지게 땅 위에 젖은 솜 마냥 누워버리는

무서운 습관의 덫의 포로일 뿐인데.

눈 시린 해가 떠 오르고 있군

순간 습관처럼 얼굴을 감싸 쥐었네만

마지막 남은 한 뺨의 오기로

맞 받아 우뚝 서 보네.

절둑거리며 걷는 이 생활이

진정 현명하지 못함을 알아 버릴 때 두발로,

당당한 두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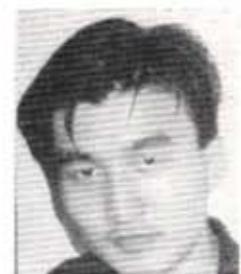
자네를 찾아감세.

## 韓氏年代記

### 무대로부터 탈출한 사람들



무대감독  
박 경 근 (전자 82)



기획보  
이 범 준 (불문 89)



무대장치  
황 명식 (전기 88)



조명Ⅰ  
권 태 수 (경영 87)



조명Ⅱ  
남 재 우 (전자 90)



음향  
권 승 혜 (불문 88)



의상  
관숙경 (사사 89)



총보Ⅰ  
정현용 (법학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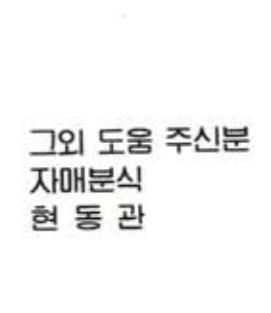
총보Ⅱ  
총은영 (법 90)



분장  
최정화 (무역 86)



진행  
이경희 (산공 89)



그외 도움 주신분  
자매분식  
현동관

## - 마음은 하나 -

1948년 8월과 9월에 남북한에 각기 서로 다른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이 고정화된 이후로도 쌍방은 이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의 실현이라는 이상에 집착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통치 아래서 오직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추구해온 한국 민족주의의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기도 했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金九의 성명 ('삼천만 동포에 읍고함 1948. 2. 10)에는 분단의 고정화에 직면한 조국의 현실에 비장하게 도전하는 한국민족주의 고귀한 이상이 담겨있다.

이러한 통일에의 집념은 비록 국제 냉전의 의미를 제일 먼저 포착하여 정치적도박을 감행했던 李承晚에게도 마찬가지였다. 李承晚 역시 통일의 꿈을 조금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종합컨데 이상주의자에게나 현실주의자에게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던 것이다.

통일을 절대시하는 자세는 북한의 공산주의자 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에게 '조선의 혁명'은 종신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한반도 전체의 공산혁명은 인민해방전쟁의 형태를 취해서라도 달성해야한다고 믿었다.

이처럼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모두 분단의 조속한 종식, 곧 통일만이 민족의 유일한 활로라고 믿었고, 이 민족적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무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신념을 강하게 가졌다. 즉, 남북은 모두 자신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고 주장하여, 대한민국은 그 헌법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여 이 실지의 회복을 바로 통일과 동일시하였으며, 북한은 그 당시의 헌법에서 서울을 '통일조선'의 수도로 규정하여 '남조선해방'을 통일과 동일시 하였다.

바꿔 말하여, 남북한은 서로 자기쪽의 체제와 통치를 상대방에 확장한다는, 즉 상대방의 봉괴 내지는 소멸이라는 조건 아래에서만 통일을 이루려고 하였다. 여기에 한반도의 분단 구조의 내쟁형화하고 불안정형화로 자기전개하여 마침내 1950년 한국 전쟁의 한 원천을 제공하였고 1953년 7월의 정권협정 이후 한반도는 휴전선을 경계로 다시 한번 분단되었다. 그리고 그 분단은 오늘날 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극의 줄거리 및 작품에 대하여

이 작품은 황석영 선생님의 중편 소설인 『韓氏年代記』(1972년 발표)를 몇년전 모국단에서 각색하여 무대화한 것이다. 해방 후의 혼란기와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얹힌 한반도 분단구조의 성립이 한국전쟁의 가장큰 원인이었다.

전시의 연합국회담은 한반도 분할에 합의하지 않았다. 1945년 5월 초 독일의 항복하고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의사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즉, 한반도에 대한 真空이라는 종래의 계획에서 군사적 점령과 무장해제라는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미국의 트루만은 이 시기에 장기간의 전쟁을 끝내기로 결정하고 대신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에서 분단하기로 결정하였다. 1945년 9월에 서울로 진주한 미군은 군정청을 세우고 남한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선언하였다.

1945년 분단의 경우,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戰後 한반도 운명이 자연히 다루어졌고 미국과 소련이 암묵적으로 합의했던 한반도를 공동으로 '지배'한다는 원칙에 의거 일본의 항복직후 미국의 제의에 소련은 쉽게 합의했던 것이다. 그 후에 미·소 강대국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묶여 한반도의 통일에 어떠한 진전도 없었고 거센 싸움속에 1945년의 잠정적 분단은 1948년에 굳혀버렸다. 1948년에 대한 분단의 보다 큰 원인과 책임은 좌·우익과 남·북한으로 갈라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끈질기게 싸운 우리의 거례에 있는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5년만에 '동북아의 화약고'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과 3차 대전의 위험성 마저 내포한채 폭발했던 것이다.

6.25의 발발로 38 이북에서 김일성대학 의학부 교수로 근무하던 한영덕은 동료교수 서학준과 함께 특병동 담당의사로 동원된다. 여기서 서학준의 탈출로 한영덕은 갖은 고문 끝에 사형에 처해지나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한 한영덕은 1.4 후퇴때 단신 월남한다.

헤어진 아들의 소식을 듣고 수용소 근처를 배회하던 한영덕은 간첩으로 오인 받고 한달간 옥고를 치른다. 그후 먼저 월남한 서학준을 통해 누이동생을 만나고 그녀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취직 자리를 구하던 중 무면허 의사인 박가와 동업을 시작하나, 박가의 실수와 이 일에 염증을 느낀 한영덕은 다른 취직 자리를 구하고 다방을 운영하는 電 미경과 재혼한다. 그후 한영덕은 부산으로 떠났고 박가가 운영하는 병원은 취체를 팔았다. 이에 분개한 박가는 한영덕을 간첩으로 고발한다. 간첩 누명을 쓴 한영덕은 갖은 고문끝에 정신 이상자가 되고 혐의가 풀려 출감한다. 이곳 저곳을 전전긍긍하던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의사에서 염을 하며 그의 인생에 점을 찍는다. 한 인간의 전쟁을 통한 삶은 분단시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분단의 현상을 민과거의 회미한 추억쯤으로 생각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망각속에 지내는 우리들에게 분단의 의미를 새삼 부각시켜주고 있다.

한영덕의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삶이 현대인에게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그의 삶은 전쟁의 희생물이 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의 염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통일문제를 재고해야만 될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배우 1 : 이준석 (기계 85)  
해설, 한영덕,  
참모,

배우 2 : 안상준 (기계 85)  
해설, 백아더, 서학준,  
신문병, 미군장교.

배우 3 : 천승범 (화공 86)  
해설, 마아살, 트르먼, 김시원,  
신문관.

배우 4 : 정석웅 (경영 90)  
해설, 원장, 한창민, 박가  
참고인, 강노인,

배우 5 : 남재현 (철학 88)  
해설, 연사, 당원, 간호원,  
한영덕의 어머니, 신문관,  
윤미경.

배우 6 : (김옥경 (국문 88)  
해설, 당원, 한영덕의 처,  
한영숙, 한혜자,

韓氏年代記  
연출의 변



연출 이영민

**연출의 변**

누가 담을 쌓았는가?  
 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왜 허물지 못하는가?  
 가 중요하다.  
 모두 함께 가자 이길을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을  
 가고 또 가면 이르지 못할 길이 있으랴?  
 자기땅 남의 것으로 빼앗겨 죽창들고 나섰던 이길  
 지 나라 남의것으로 빼앗겨 화승총들고 나섰던 이길  
 다시는 제 아니가고 길만멀다 하지말자  
 다시는 제 아니가고 길만험타 하지말자  
 통일의 이길을.

韓氏年代記  
시

**삼팔선의 밤에**

눈보라가 친다 삼팔선의 밤에  
 정작 어디에서 불어오는 줄도 모르는 바람은  
 내 외투깃을 여미게하고 자꾸만 눈은 내려  
 군화를 덮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덮고 나는  
 눈에 파묻혀 철모를 쓰고 총을 멘 허수아비가 되어  
 보초를 서고 있다. 삼팔선의 밤에  
 누구의 밤을 지키고 있는가 이밤에 나는  
 내가 지키고 있다는 세상의 재산이란 무엇이며 누구의 것인가  
 내가 지키고 있다는 생명이란게 또한 누구의 생명이란게  
 또한 누구의 생명인가

.....

뭐라 하실까 만약 어딘가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미제군화를 신고 눈속에 묻혀 미제 철모를 쓰고  
 북산(北山) 가슴에 미제 총을 겨누고 있는 나를 두고  
 뭐라 하실까 나라 국경지키는 용사라 하실까

.....

## 韓氏年代記

### 내가 만난 한씨연대기

내가 너를 알게 된 건 나 자신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의 강요된 인연으로 인해서 였나보다.  
습득과 포기의 연속은 내 하루의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뒤 따른 너로 인해서 느끼는 문학적이고 다양한 측면들이 서서히 굳어있는 내 정신적 영역 속에 잠입한 그래서 이제는 내가 표현하는 나의 얼굴과 몸짓이 객관화 되고 나의 관객과 일치할 스스로 없이 껌질을 벗어야지.

내가 아닌 고통 받는 자들의 얼굴로서 그리고 정신적인 한계 상황에 까지도 부딪혀 봄아지.

- 상 준 -

현실적인 나의 위치가 허용되지 않아서 인가.

처음의 나의 망설임은 지독히도, 불안과 철저한 이기심으로 인해 쉽게 분해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애정으로 가득찬 재촉과 의욕은 도피가 아닌 공백과 여유를 가져다 주었으며 불투명하던 미래에 좀 더 뚜렷한 관망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었다.

어디에서 내가 다시 큰 목소리로 ‘사랑한다’ 외칠 수 있을까.

그래도 내겐 저 뜨거운 무대가 있는걸…….

- 승 범 -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다음엔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러나/이젠 깨달았습니다. 민족의 분단, 그것이 왜 우리가 아닌 남에 의해 겪어야하는 아픔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남에 의해 갈라졌지만 우리의 힘으로라도 그것을 깨어야만 한다는 걸/깨달았습니다.

- 재 현 -

한 인간의 삶이 주변환경에 의해 파멸당하기란 얼마나 쉬운일인가.

우린 ‘운명’이란 미명하에 生을 체험해야 하는가.

자신의 삶에 진실로써 부딪쳐보건만 하나하나 허물어져가는

모습에서 인간의 허무를 본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에 내팽개쳐진 우리네는

무엇을 ‘善’이라, 무엇을 ‘眞’이라 정의 내려야 하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 옥 경 -

그러나 난

의심할 이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난 그를 의심했지.

그러나 무고하더군.

나도 어쩔 수는 없었어.

그게 내게 맡겨진 역할이기 때문이지.

어떠한 연극엔 이런 역이 필요한 것일까.

- 석 용 -

과연 누가 이 민족의 이질화를 초래하였는가.

단군님 시조님!

피해자가 되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디 혁명함을 주소서!

- 준 석 -

## (축) 공연 ♦

참된 연극인이 되시길 바라며, 대학연극의 기수로 활동하는 숭대극회 제 43회 가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아리의 단결의 구심!!!

- 민족 숭실 동아리 연합회 -

### 경양식 & 호프전문점



☎ 812-5768

숭실대 정문

모든 사진은

23분 칼라현상소



TEL: 813-2708  
(숭실대무역학과)



☎ 817-0821

멋진 공간을 약속드립니다.

후문 숭실대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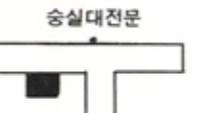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학사주점



옛촌

TEL: 813-6235

### 백마분식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습니다.  
숭실대 앞  
TEL: 820-8344

당구의 묘미를 즐기시고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상아당구장

☎ 815-0563

# 韓氏年代記

## 연습일지

7月○△日

우여곡절의 Casting. 그리곤 더듬거리던 Reading.

7月○×日

연 이틀째의 Reading.

피양 사투리가 대부분이던 대사 때문에 표준말의 익양에다 드립따 사투리 음절만 갖다 붙임.

연 출: “이·씨· 그건 어디 사투리냐?”

7月△×日

궁처럼 차운 체육복 차림으로 body training과 무대연습. 누구 체육복엔 곰팡이까지 끼었음. 각자를 속으로 “한만하면 빨아, 끼질려 응.”

7月△△日

〈○막○장 실문관의 취조부장면〉

심문관(처스버분) 시끼가 괴심문자를 진짜로 두들겨 캠.

필자의 생각엔 평소의 원한심리가 개입됐음을 것으로 보임.

7月△×日

여수 같은 비로 아침부터 김샜음(필자생각)

〈○막○장 – 한영덕과 서학준의 포옹장면〉

돌이서 너무 부대끼는 바람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입맛 다시게 함.

7月×△日

Cast들 氣빠진 연기로 인해 연출에게 욕먹음.

결국 연습 세치고 수영장으로 페밀리 가기로 합의봄.

7月××日

〈○막○장 기합장면〉

주제에 어느 기집애는 몽둥이 들고 설침.

보통실력이 아닌것으로 와선 평소에 동생을 많이 패본것으로 보임.

7月○△日

〈○막○장 얼차례 장면〉

男子 Cast들 무대 몇번 뒹굴더니 고 재미가 여간 아닌지 휴식시간마다 무대 바닥에서 뒹굴뒹굴 거림.

7月△△日

〈○막○장 포복장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흡사 거지새끼들 같음.

연 출曰 흐뭇해하며 허허 “고장면 죄금만 더 들이자”

7月△×日

기획과 연사(남재현 분)는 웅변학원으로 연출과 한영덕은 (이준식분)은 염 배우리 장의사로 출발.

7月××日

라면으로 시작해서 라면으로 끝나는 허망한 것기록.

기획曰 “자정에 기도하면 내일부터 밥먹을 수 있어.”

8月○○日

포스터 제작에 돌입.

머지않은 공연날을 의식하며 모두들 새로운 각오로 연습에 입함.

더불어 금연, 금주령이 내려짐.

8月××日

급주령으로 인해 몇몇은 너무 자주 화장실에서 10분씩 계기다 들어옴.

〈○막○장 파이프문 백아디 연설장면〉에서 백아디의은 연신 흡족해하며 파이프를 뿐아내.

담배 열개 정도를 부셔서 파이프에 꾹꾹 눌러담은 덕에 연습시간 내내 쪽쪽 빨아댐.

90학년 녀석이 훔쳐서 빨아대다가 이를 뿔힐뻔 했음.

8月×△日

거의 끌려가 것취져 감.

피곤해를 했지만 그것은 달콤한 피로임을 필자는 주장하고 싶음.

8月△○日

공연 임박.

Setting 마무리 작업과 소품준비. 열심히 뛰는 모습들이 아름다워 필자는 미칠지경임.

8月△△日

공연을 위해 마지막 작업에 미쳐들 있음. 볼수는 없지만 각자를 가슴속의 열정은 이 세상을 가히 태우고도 남을 것이다.

# 공연연보

회	공연 일시	작 품 명	기 획	연 출
1	1921년 6 : 13	연홍회소인극 “절세명종 나풀레옹의 망토” “대비극 노예의 탑”		
2	1923년 7 : 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체인간” 범벗청년회 주관		
3	1923년 7 : 28, 29	“소인연극” 교학생후원회 주관		
4	1965년 11 : 11	“폐궁으로 돌아온다” 황영석作 이반 기획	이반	전진호
5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6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7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8	1970년 5 : 15	“필자와 생활”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9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사무엘·辈凯特作		김양기
10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건널목 살화” 윤조병作 “단배해독에 封 해서” 안톤·체홉作 “황금단지” (로마극) 주라우터스作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辈凯特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11	1971년 11 : 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作		차현재
12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펀더作		한영재
13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의 결혼” F. 위렌마트作		고봉인
14	1973년 10 : 25, 26, 27	“방” H. 펀더作 “기도” (소극장) F. 아라벨作	김득남 차현재	
15	1974년 5 : 25, 26, 30	“정의의 사람들” (전5막) A. 카뮈作		정종화
16	1975년 6 : 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토옙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17	1975년 10 : 29, 30, 31	“비더만과 방화범” Max Frisch作	김기열	안홍순
18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클로드·반·이탈리作	김기열	김득남
19	1976년 10 : 25, 26, 27, 28	“행” 장·클로드·반·이탈리作		김영덕
20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辈凯特作	백정식	김영덕
21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辈凯特作	방영철	김영덕

회	공연 일시	작 품 명	기 획	연 출
22	1978년 9 : 29, 10 : 2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방영철	김영덕
23	1980년 11 : 5, 6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辈凯特作	민승기	김영덕
24	1981년 6 : 12, 13	“한강 2979” 김영덕作	정재호	이병국
25	1981년 11 : 12, 13, 14	“초 분” 오대석作	이정일	황정순
26	1982년 9 : 12, 13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作	엄세영	박양진
27	1982년 10 : 7, 8	“노부인의 방문” F. 위렌마트作	이종규	황정순
28	1983년 6 : 20, 21	“달맞이 꽃” 김병종作	천석근	황정순
29	1983년 10 : 7, 8	“드레비” John Bowen作	이현우	오정열
30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이종규	엄세영
31	1984년 10 : 11, 12, 13	“변 전소” John Stoltenberg作	차세훈	이용섭
32	1985년 5 : 9, 10, 11	“빈민窟” Maxim Gorky	김상현	이용섭
33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 카페스키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 : 4, 5, 6	“에우수스” EQUUS 피터·辈凯特作	허성무	하승민
35	1986년 9 : 11, 12, 13	“코뿔소” E. 이오네스코作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 : 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권혁진	이준석
37	1987년 9 : 10, 11, 12	“오 해” A. Camus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 : 2, 3, 4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이 어령作	이중일	오정열
39	1988년 10 : 6, 7, 8	“안내자? 못내자?” Dario Fo作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 : 25, 26, 27	“농녀” 윤조병作	안선희	천승범
41	1989년 10 : 10, 11, 12, 13	“대성당의 살인” T. S. Eliot作	오정열	이반
42	1990년	“안디고네” 장·아누이作	권혁진	이준석

## ▶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

회	공연 일시	작 품 명	기 획	연 출
1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품” W. Arving作		김홍수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作		김득남
3	1977년 3 : 16, 17, 18	“줄 빌” 윤대성作	전정호	안홍순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作	한 철	정재호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이영환	오세환
6	1982년 3 : 24, 25	“임금님 쥐는 당나귀 쥐” 김용락作	최시영	이용섭
7	1983년 4 : 16, 17	“불타코메디” 피터·辈凯特作	전희식	홍여석

회	공연 일시	작 품 명	기 획	연 출
8	1984년 3 : 8, 9	“개인의 소공간” N. Holand作	차세훈	김인보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이영민	하승민
10	1986년 3 : 17, 18, 19	“인형의 집” 벤탁·일센作	이길영	김정은
11	1987년 3 : 12, 13, 14	“더러운 손” J. P. 샤르트르作	백윤현	박경근
12	1988년 3 : 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作	천승범	황금실
13	1989년 3 : 23, 24, 25	“혹인수녀를 위한 전통곡 A. Camus” 흥덕래	이영민	박혜숙
	- 3 : 8, 9, 10	“우옹승화자 Botho Strauss”	안상준	백모라

